

J프로젝트

부동지구 개발 결국 범정으로

서남해안레저관광기업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부동지구의 특수목적법인(SPC) 썬카운티(주)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사업타당성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9일 썬카운티(주)는 “사업타당성이 낮다”며 개발계획 승인신청 자체를 반려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행사 “소송 제기” 장기표류 불가피

이 회사 관계자는 “부동지구 개발은 민간주도 사업인데도 대규모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공공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을 적용한 점, 지역 균형발전 등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최종 판단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기업도시 개발만 놓고 타당성을 조사했다”면서 “기업도시의 다른 사업지구와는 달리 부동지구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것도 행정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은 1심만 최소 10개월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부동지구 사업 추진은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한편 6개 지구로 나눠 추진됐던 J프로젝트는 초송·송촌지구가 이미 백지화됐다 이어 삼호지구는 담보상태에 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



제19대 총선을 이틀 앞둔 9일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광주시 북구 담배인삼공사 강당에 개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늘어난 박빙승부... “투표율 높여라”

승패 가를 변수...야권, 참여 독려 안간힘 선관위도 각종 홍보 이벤트 열기 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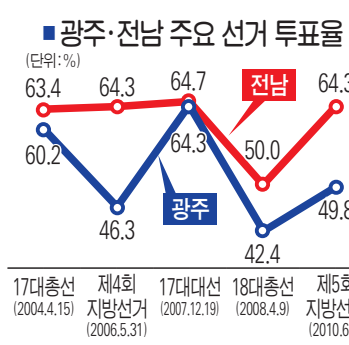
4·11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아 각 정당과 선관위 등이 투표율 높이기 위해 준비를 기울였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동층과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투표를 끌어 올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광주·전남 역대 투표율=광주는 지난 2008년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42.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0.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8%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셈이다.

광주는 지난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 때도 투표율이 49.8%를 기록해 50%를 넘지 못하며, 대구와 부산에 이어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선관위, 투표율 올리기 안간힘=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50% 미만의 점을 감안해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 선관위는 선거일인 11일까지 광주 시내버스 정보안내 단말기 322대와 금융기관 ATM기 970대와 광주 시내 대형 전광판 2대, 소형 전광판 1대에 투표 참여 홍보 동영상을 상영 중이다. 앞서 지난 주말인 6~8일 광천동 종합 버스터미널과 농성동 상록회관, 총장로 광주우체국 앞 등지에서 유권자 드림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투표참여 독려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도 투표참여를 위해 전남지역 우체국 집배원 1100명과택



시운전자 1500명을 ‘투표참여 이동 홍보요원’으로 위촉해 운영하는가 하면 총 220만원을 상금으로 내건 선거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5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남 선관위는 투표율이 60% 가까이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정당도 ‘투표 참여’ 호소=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보 진영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투표율이 55%를 넘으면 민주당에, 그 이하면 새누리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광주 서구 을을 포함한 전국 격전지의 경우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주요 변

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9일 서울 연세대 정문 앞에서 ‘청년 투표참여 캠페인’을 비롯한 ‘48시간 대국민 투표참여 캠페인’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는 투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성 공약을 내걸었으며, 광주·전남 진보연대로 8일 투표 참여 독려 지역원로 호소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지난 18대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6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58.1%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알림

광주일보 창사60주년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제57회 호남예술제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전 ‘호남예술제’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우치동물원 등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대 최고 종합예술제전인 제57회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내일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 참가자격: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경연기간: 4월 25일(수)~5월 24일(목)
- 참가부문: 음악·국악·무용·미술·작문
- 접수기간: 음악·무용·국악= 4월 11일(수)~18일(수), 미술·작문=5월 14일(월)~17일(목)
- 접수방법: 방문신청=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우편신청=우편번호 501-711 / 광주광역시 동구 급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 인터넷신청=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홈페이지 참조 (세부일정은 4월 23일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 우수지도상 수여, 국회의장상(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개인-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미술·작문) 단체-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 | 협찬: 삼성생명
후원: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조현오 경찰청장 사퇴 “수원 살해사건 책임”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 청장의 사의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9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은 조 청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행시 특재), 이강덕 서울경찰청장(경찰대 1기), 김기용 경찰청 차장(행시 특재), 이강덕 서울경찰청장(경찰대 1기), 이성환 부산경찰청장(간부후보 31기) 등 치안감 4명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간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 합시다!

“안전운전을 위한 팀이력, 매너”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차량 전조등(Headlight)이란?

-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다른 차나 사람에게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경고수단
- 최근 출시된 국산차나 외제차는 주간 주행등 미장착 차량의 경우 전조등은 하향 라이트를 말함(국내법규도 개정하면서 국산차도 주간주행등 설치 가능)
- ※주간주행등(DRL, Daytime Running Lamps)은 주간점등을 위해 기존 등화장치외에 별도의 전용 등화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동과 동시에 점등이 되며 EU에서는 주간주행등 규정을 1992년부터 제정해 2011년부터 유럽전역으로 의무장착(트럭과 버스는 2012.8부터)

전조등 켜기 꺼리는 이유?

- 연료 및 배터리 소모, 전구수명 단축 등 인식 때문
- 초보운전(운전미숙)자로 오해를 받고, 또 상대방 운전자에게 미안해서 등

전조등 켜기 기대효과?

- 운전자: 운전시 주의력·집중력 향상, 졸음운전·중요시점 침범 등 사고방지 효과 발생
- 노인, 어린이 등 보행자: 자동차 위치가 쉽게 인식되어 사고예방 효과
- ※[2009년 교통안전공단] 전남지역 법인택시 1680대 주간전조등 시제결과 28% 감소
- ※[2008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주간전조등 점등 운행시 2,621억 비용편익 발생

전조등 켜기 연료소모는?

- 시속 60km로 50km의 거리를 주행할 때 0.1ℓ의 기름 추가소모(약 200원)

광주광역시 | 광주지방경찰청 |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